

금융망이 가동되면서 생산된 이익



조 이 남

1986년 6월 2일은 금융공동망을 개발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이 창립된 날이다. 금융망의 첫 번째 개발 대상은 개별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공동망에 연결하여 고객이 카드 한 장만 소지하면 어느 은행의 점포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고객은 먼 거리에 위치한 거래은행에 가지 않아도 쉽게 인근 점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므로 거래은행에 가야만 하는 교통비와 시간이 절약되어 이에 따른 경비를 축적하는 효과가 생기며 은행 창구에서는 현금 입

약력 : •69~70 한국유니백 주식회사 •70~80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80~86 은행지로관리소 전산부 •현재 금융결제원 전무이사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장 한국정보처리학과 회장

출금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량이 감소된다.

실제로 현금자동인출기의 공동이용은 88년 5월에 가동하기 시작하였는데 10년이 지난 98년 12월에는 17,500개 은행(우체국 포함) 점포에서 하루에 190만건씩의 현금 인출이 일어나고 있어 순수한 은행 직원의 인건비로 계산할 때 1,575억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되고 이용고객의 절반 정도가 교통비를 절약한다고 볼 때 왕복 1,000원씩만 계산하여도 1년에 1,800억원이 절약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다면 놀랄만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금융공동망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발생하였던 또 다른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금자동인출기를 처음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JIS(일본표준) 규격의 현금 카드만을 사용하게 만든 일본 제품의 현금자동인출기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금융공동망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카드의 규격을 ISO(국제표준) 규격으로 변경하였다. ISO규격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장차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세계화 해야 되며 이로인한 경쟁력을 높이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일본제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ISO규격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자체를 개조해야 하고 고객에게 발부한 현금카드를 재 발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엄청난

저항 의견이 발생하였고, 이 시스템을 개발 이행해야하는 주최측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상당한 기간동안 카드의 표준화 문제로 감논을박 하던 중, 그래도 앞으로의 장래를 보면 개발시점에서 바꾸어야지 변경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제표준규격을 채택하지 못하는데 따르는 부수적 불이익이 증대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시스템 개발을 주관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을 보류한채 지나가면 후일 그 문제점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과감히 ISO 표준규격에 맞추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현금자동인출기 공동시스템을 가동하여 상당한 기간중에는 JIS규격과 ISO규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발급되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ISO규격으로 통일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기계값이 대당 us\$23,000불 하던 것이 ISO규격 채택후에는 7,000불로 기계값이 떨어져서 은행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지금도 표준화 작업에 관한 토픽이 논의 될 때는 그 당시의 생각이 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고 주장하게 된다. JIS규격의 카드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무관세 장벽과 같음을 실감나게 하는 예가 되었다.